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등재

-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연계한 가공품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대나무대에 대나무살을 엮어 망을 만들어 연결한 도구)를 사용해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업 문화, 생물다양성, 경관 등을 지정·관리(전 세계 74개소, 국내는 농업분야만 5개소 지정)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SAG, Scientific Advisory Group)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였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프로그램 운영, 등재 심의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9명)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0년 1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전문가그룹의 서면심의와 현지실사* 등에 적극 대응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 2023. 4. 30.~5. 2. / 경남 하동, 전남 광양 등 섬진강 일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연계한 가공품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김호진 (044-200-5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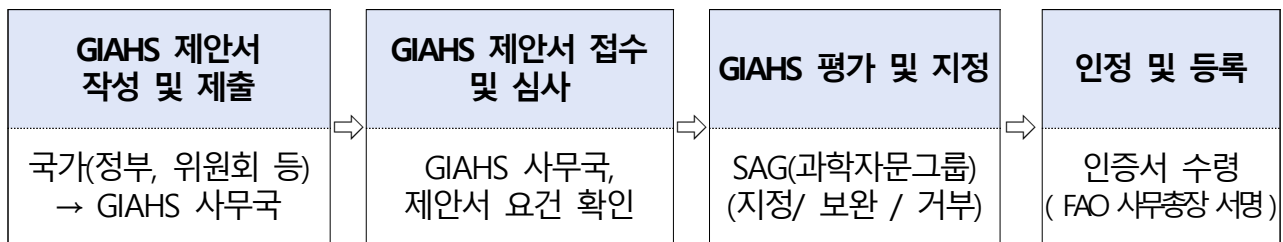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개요

- (추진배경) 전통적 농업시스템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GIAHS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면서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창설한 제도

*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남아공, 2002)

- (추진목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 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동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

- 지정절차



<GIAHS 등재기준>

등재기준	세부정의
식량 및 생계의 안정성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지역공동체의 식량·생계안정 기여, 공동체 내에서 공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농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농업
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농업, 어업, 목축, 임업 등 식량 및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로 정의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지역 및 전통적 지식시스템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농업, 어업 등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생물종, 토지, 수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한 독창적인 적응기술 및 관리시스템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자원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범과 관행, 농업시스템의 역동적 보전에 기여하는 공동체조직
육지경관 및 해양경관의 특징 (Landscape and Seascape Features)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안정화되면서 느리게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육지경관이나 해양경관

- (현황) : 24개국 74개* 시스템 등재, 우리나라는 농업유산 5개소** 등재

* 74개 중 어업유산 2개소(스페인 아냐나의 소금생산 시스템, 일본 나가라강의 은어잡이)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밭담, 하동 전통차, 금산 전통인삼, 담양 대나무밭 농업

참고2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연번	유산명칭	지정연도	대상 지역	특 징
제1호	제주 해녀어업	'15.12.21.	제주도 해역 (14,346ha)	해녀들이 특별한 공기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제2호	보성 뽕배어업	'15.12.21.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km ²)	썰물 때 뽕배를 타고 나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꼬막을 채취하는 어업
제3호	남해 죽방렴어업	'15.12.21.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대 (537.2ha)	좁은 바다의 물목에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제4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	'16.10.31.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km ²)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제5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17.12.1.	완도군 고금면 청용·가교·봉명리 일대(358ha)	갯벌에 지주목을 세우고 발을 설치하여 김을 생산하는 어업
제6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18.11.30.	무안 탄도, 신안 선도 일대(118.35km ²)	맨손 또는 낙지잡이 전용 삽인 가래삽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어업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18.11.30.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대(140ha)	기수역에서 거렁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
제8호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20.07.06.	통영·거제 견내량 해협 일대 (63.6ha)	트릿대라는 긴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감아올려 채취하는 어업
제9호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	'21.03.08.	울진·울릉 돌곽 채취 구역(39.79km ²),	오동나무 등을 뗏목처럼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제10호	부안 곰소 천일염업	'21.09.02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대(5.4km ²)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제11호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21.09.03	신안군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6901.4km ²)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는 어업
제12호	경남 거제 송어 망쟁이 들망어업	'22.08.16	거제시 6개 어촌계(도장포, 양화, 학동, 선창, 다포, 다대)(69,340m ²)	망쟁이가 송어 떼의 이동 흐름을 읽고, 들망을 이용해 송어 떼를 가두어 잡는 전통 어업방식

참고3

하동·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 개요

□ 어업개요

- (재첩) 섬진강 하구의 대표적인 자원으로 깨끗한 수질(1~2급수)과 적정 염분농도(3~20psu)의 모래가 많은 기수역에 서식하는 민물조개
- (손틀어업)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 라는 도구를 사용해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4~11월 물때에 맞춰 채취)

* 대나무대에 대나무살을 엮어 망을 만들어 연결한 도구

□ 주요특징

- 재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이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는 행위는 생태계 순화에 긍정적 영향
- 영호남 구분 없이 두레라는 공동체가 생겨 현재 12개 유지중이며 재첩잡이 풍경은 섬진강의 자연과 어울려 고유 경관을 형성

* 하동·광양 재첩생산 통계자료 📄 허가건수 358건(하동 147, 광양 211)

년도	생산량(kg)	생산액(천원)	kg당 금액(원)	비고
평균	419,156	1,233,280	3,044	‘20~’22년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광경



FAO 현지 실사 광경

